

# Field Voice >>>

## 전기요금 현실화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의 추위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사람들은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고, 한전 등 전력그룹사는 안정된 전력수급을 위한 전쟁을 벌여야 했다. 무엇보다 난방 수요 급증과 산업용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올 겨울만 벌써 4번째 최대전력수요가 갱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수요 급증과 관련, 값싼 전기요금에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난로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 원가 대비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업체들이 경기회복과 동시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역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수밖에 별다른 수단이 없다. 하지만 올 초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 가스 등 사용요금을 동결했다. 당장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에너지 사용의 왜곡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많다. 한전 등 전력그룹사 입장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민심 때문에 그런지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일반 시민들은 공기업이 돈만 벌려 한다는 꼬치 낚은 시선을 보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한전 등이 돈을 더 벌자는 데 있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코앞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적인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원가를 연동한 요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정부 및 관련 기관, 업계에서 더 강력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올 해 임기만료 되는 전력그룹사 임원·전기단체장은 누구?

올 초부터 전기관련 단체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예정돼 있어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선거가 2월 16일 예정돼 있다. 전기공사협회의 경우 현 최길순 회장은 2009년 8월 전임 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는데, 이 경우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이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도 2월 23일 예정돼 있다. 현 전기조합 이재광 이사장 역시 지난 2009년 9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2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도 올 해 수장이 바뀐다. 전기산업진흥회의 경우 지금까지 관례상 추대 형식으로 선거 없이 회장이 선출돼 왔는데, 올 해도 이번이 없을 것이라 전망이다. 회장 선출은 2월 1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뤄진다. 전력그룹사 임원들 중에도 올 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들이 제법 많다. 우선 한전 강승철 상임감사 임기가 종료됐다. 한전 신임 감사에는 한대수 한나라당 청주시장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한전에서는 정찬기 기획본부장, 이도식 관리본부장, 장영진 기술본부장, 변준연 해외사업본부장 등이 2월로 기본 임기인 2년이 종료된다. 한전 상임이사의 경우 임기가 '2+1' 년인 점을 감안하면, 누가 1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 김쌍수 사장의 임기는 8월까지다. 발전회사의 경우엔 남동발전 장도수 사장, 남부발전 남호기 사장,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 모두 임기가 올 10월까지다. 임기가 3년인 발전회사 본부장급 역시 대부분 2009년 초, 지난해 초에 부임하면서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다. 기타 사회사의 경우 한전KDN 전도봉 사장이 10월에 3년 임기가 종료되며, 한전KPS의 경우엔 정도정 정비사업본부장, 유승봉 신성장사업본부장이 오는 5월 임기가 끝난다. 전력거래소는 이승락 기획본부장, 김성학 운영본부장이 5월 기본 임기가 종료되는데, 전력거래소의 경우 '2+1' 년으로 임기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역시 관심이 간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한전의 발전6사의 경우 조만간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다. 발전회사의 경우 임원들의 임기가 3년이었지만, 시장형공기업 지정시에는 '2+1' 이 된다.